

단청장엄으로 표현한 불보살의 세계

- 전통사찰 천정장엄을 중심으로 -

노재학 불교미술 사진가

목차

- I. 문제제기 두 가지
 - 불전건축은 생명력의 숲이자 법계우주
- II. 사찰천정 단청장엄과 장엄소재
- III. 천정 단청장엄의 기하학적 대칭과 나선형 구조
- IV. 단청으로 구현한 연화장세계
- V. 천정 단청장엄으로 표현한 불보살 세계
- VI. 결론; 범자종자불의 연화장세계

국문초록

불전건물의 단청장엄은 자연의 숲에서 지혜를 빌린 엄숙한 장식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의 패턴에서 조화롭고 세련된 색채와 형태로 재구성 한 인문예술적 산물이 단청이다. 종교적 단청장엄이 가장 숭고하게 결집한 곳이 법당 천정이다. 시대요구에 따른 가구구조의 역동적인 짜임은 천정형태에 보다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에 지붕의 내부 뼈대가 노출되어 있던 천정은 전란 후 조선중기에 이르러 우물 井자의 울거미에 반자를 덮은 우물반자, 혹은 빗반자로 결구한 천정형태로 나타났다. 층급 우물천정과 빗반자-우물천정이 대표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새롭게 등장한 우물천정은 법당 내부 단청장엄에 커다란 화면을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종교적 교의의 표현에 주의 깊은 세심함을 요구했다. 행과 열로 짜맞춘 우물반자 칸칸은 불교의 광대무변의 세계관, 혹은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었다. 우물반자 한 칸 한 칸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불국토로 경영하는 슬기를 발휘한 것이다. 몇몇의 문양을 반복하고 천정구조의 기하학적 대칭을 활용해서 천정 전면을 거대한 불국정토 만다라로 탁월하게 경영했다.

천정을 장식한 단청장엄의 핵심 질료는 연화(蓮華)와 범자(梵字)였다. 범자 한 자 한 자는 번역하지 않는 진언, 곧 진리를 상징하고, 부처님의 ‘신구의 삼밀(身口意 三密)’의 총지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씨앗, 종자(種子)로 인식했다. 천정의 우물반자 칸칸에 팔엽연화, 혹은 육엽연화를 그린 후, 날날의 꽃잎마다 그 범자종자를 심었다. 그 단청은 목적성을 향해 가는 질서 있는 거룩한 의식에 가까웠다. 왜냐하

면 새로운 형식의 부처, 곧 범자종자불을 천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내밀히 봉안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입체적 조각으로 표현한 불상이나 평면적 회화로 표현한 불화와는 또 다른 형식을 갖춘 부처님의 나투심이었다. 범자 진언의 내밀함만큼이나 상징성의 아우라는 깊고도 심오했다. 범자 종자를 통해 우물반자 칸칸에 부처님의 색과 소리, 향, 광명을 심었다. 천정에 삼존불, 오방불, ‘옴 마니 파드메 흠’, 팔방의 불보살, 천불로 꽃이 피듯 나투셨다. 대칭과 반복을 통해 거대한 종자만다라(種子曼荼羅)가 펼쳐졌다. 천정의 단청세계는 궁극적으로 진리와 자비로 가득한 화엄의 연화장세계로 구현됐던 것이다.

주제어 : 사찰천정, 단청장엄, 범자종자불, 중대팔엽원, 연화장세계

I. 문제제기 두 가지

- 불전건축은 생명력의 숲이자 법계우주

1. 문제제기 1: 불전건축, 생명력의 숲

한국 사찰의 불전건물은 거의 완벽한 숲의 구현에 가깝다. 숲은 온갖 생명의 당처다. 고요하며 청정하고, 못 생명들의 활기로 가득 찬 거룩한 공간이다. 것처럼 청정하고 고요하며 성스러운 공간도 드물다. 종교적 건축이 숲에서 모티프를 취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중세

서양의 고딕건축 역시 유럽의 떡갈나무로 울창한 활엽수 숲의 구현이었다. 코린트식 주두를 장식했던 아칸서스 잎 조형은 유럽의 활엽수 잎을 장식한 것이다. 고딕 대성당들 역시 숲의 전당이었다.¹⁾

대웅전 건물을 떠올려보자. 가장 먼저 기단부를 구축한 후에 기둥을 세운다. 기둥의 열주들은 곧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다. 나무의 대간과 줄기들은 붉고 잎은 푸르다. 위는 푸르고 아래는 붉으니 상록 하단이고, 그 두 빛이 단청이다. 단청은 곧 숲의 생명력을 담아낸 자연의 형태, 색채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의 패턴에서 조화롭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성 한, 색채와 형태에서의 인문에 술적 산물이 단청이라 할 것이다. 나무 한 그루는 그 자체가 완벽에 가까운 건축물이다. 중력과 비바람을 이겨내며 가장 안정적인 역학 구조로 최적화 된 형태다. 자연의 나무는 선형적이며 완전한 형태의 건축에 가깝다. 법당 건축의 가구들은 나무들이 쪽쪽 늘어선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참나무와 소나무, 산벚나무들이 하늘로 뻗치고 담쟁이 같은 넝쿨식물들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나뭇가지를 감아 오르는 장면을 재현해 놓은 듯하다. 전통건축의 공포며 첨자, 살미, 대량들의 역학적 가구구조는 나무 가지들이 초록으로 뻗어나간 익숙한 숲의 풍경이 아닌가?

특히 어둠의 깊이와 고요, 그 속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빛의 영광은 공간의 신성성을 이끄는 효과를 갖는다. 숲을 모티프로 건축한 공간내부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은 숲 속에서 무상정등각을 취하신 그 장면을 구현한 것이고, 영산회상 등 진리의 수레바퀴를 구르신 전 법륜의 장면을 현실에 재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1) 사카이 다케시, 이경덕 옮김,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 다른세상, 2009, pp 46-49

그러므로 불교장엄으로 재해석한 숲은 더 이상 자연의 숲 자체가 아니다. 정신적이며 초월적인 다른 차원의 숲이다. 가구식(架構式)으로 결구한 온갖 목재들의 표면과 단면에 신령한 에너지를 불어 넣었던 까닭이다.

2. 문제제기2: 천장(天障)인가, 천정(天井)인가

- 천정, 우주를 보는 창

일반적으로 ‘천장’은 낮고 좁은 건물의 내부공간 위를 평평하게 막은 개념이라면, ‘천정’은 궁궐이나 사찰건축 등과 같이 넓고 높은 내부공간을 우물 정(井)자 격자 칸을 짜서 층급으로 위엄있게 꾸민 형태를 반영한다.²⁾ 왜냐하면 높고 넓은 가구식 건축은 몇 장의 넓은 판재로 한꺼번에 덮을 수 없어 우물 정(井)자 형태의 반자틀을 짜서 칸칸이 반자를 채우는 방식을 취하는 까닭이다. 즉 ‘천장’의 개념이 평

2)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천장’을 ‘반자의 겉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의 상부를 평평하게 펼쳐 막은 반자의 겉면을 ‘천장’이라 하면서, 혼용해왔던 ‘천정’은 북한어로 소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엔 ‘천정’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누리집에 들어가서 ‘천정’과 ‘천장’을 검색해보면 뜻밖의 결과를 알려준다. 천정의 단어는 숙종과 영조실록 등 몇 곳에서 나타나지만, 천장은 0건의 검색결과를 나타낸다. 즉 ‘천정’이 식민지 잔재인 일본식 표현이 아니며, 조선사회에서 통용된 언어라는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오히려 천정의 개념이 천장의 개념보다 보편적임을 시사한다. 1988년 ‘문체부 고시 제88-2호’로 발표한 「표준어 규정」을 보면,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라 ‘천장’을 표준어로 취하고 ‘천정’은 버린다고 밝혀두고 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따른 것이다. 제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다. 예컨대 상판대기(ㅇ)/쌍판대기(x), 습니다(ㅇ)/읍니다(x)와 같은 사례다. 그것들은 발음의 문제로 하나의 표준어로 순화한 사례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천장/천정의 표준어 규정문제는 발음의 형태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천장과 천정의 개념은 가설방식, 혹은 모양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개념이다.

면성의 2차원적이라면, ‘천정’은 입체성의 3차원적 개념에 가깝다. 가구식 건축의 독특한 상부장치로서 천정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천장(天障)’ 개념은 ‘하늘 천(天), 막을 (障)’이니 말 그대로 하늘을 가로막은 단절의 개념성이 내포해 있다. 그런데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은 고구려 벽화고분처럼 오히려 하늘세계 그 자체를 구현하고 있다. 구름, 별자리, 비천, 용, 봉황 등의 문양을 배풀어 공간의 신령함과 우주적 공간으로 경영한다. ‘천장’의 개념은 그 문양세계와 충돌하며 형용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천정(天井)’은 직역하면 ‘하늘의 우물’이다. 물론 ‘천정’의 본래 개념은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격자들을 짠 물리적 외형의 반영일 것이다. 그런데 하늘 우물의 ‘천정’ 개념은 건축 외형의 반영을 떠나 대단히 철학적이며 인문적이다. 우물 칸 한 칸은 하늘을, 우주를 보는 창이다. 천정만자 한 칸은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천문을 관측한 경주 첨성대의 우물 정(井)자 상부구조를 떠올려보면, 우물천정은 가구구조의 건축적 형태를 이용하여 ‘집 우(宇) 집 주(宙)’의 우주적 개념을 경영한 인문예술적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천장을 천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궁궐이나 사찰건축 천정장엄의 본질 규명에 보다 한 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천정’의 개념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II. 사찰천정 단청장엄과 장엄소재

1. 전통단청 현존하는 사찰 및 불전건물 분포현황

2016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수는 965개소이다. 전국의 사찰 수를 약 22,000여개로 추정할 때 전통사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4.4% 수준이다. 그 중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507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전통사찰을 찾아다니며 불전건물 천정에 장엄한 단청세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왔다. 영상기록 대상을 정하는 데 나름으로 세운 원칙은,

첫째, 최소한 100년 이상 오래된 건축일 것.

둘째, 고유한 고전의 빛을 간직해있을 것.³⁾

셋째, 개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유하고 독특한 천정장엄이 있는 경우.⁴⁾

그 기준으로 유의미한 천정 단청장엄세계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전국에 걸쳐 1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고, 불전건물의 수는 170여 곳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도1>의 현황표가 그것이다.

3) 만약 200년, 혹은 300년 이상 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최근 개채한 단청장엄은 제외했다.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고흥 능가사 대웅전, 공주 갑사 대웅전 등이 그 같은 사례다.

4) 예를 들어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경우는 새로 개채 하였지만 천정 종다라니에 물고기, 거북, 개 등 옛 조형들이 귀하게 남아있어 천정단청 조사통계에 채택했다.

〈도 1〉 전통단청 현존하는 사찰 및 불전건물 지역별 현황표

지역		전통사찰	비고
강원도	속초시	신흥사	극락보전
	홍천군	수타사	대적광전
	영월군	보덕사	극락보전
인천광역시		전등사	대웅보전, 약사전
		정수사	대웅전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	극락전
	남양주시	홍국사	영사전, 대웅보전, 시왕전, 만월보전
	안성시	청룡사	대웅전
		칠장사	대웅전, 원통전
	여주시	신흥사	극락보전
	파주시	보광사	대웅보전
	화성시	용주사	대웅보전
부산광역시		장안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팔상 · 독성 · 나한전, 산신각
울산광역시		신흥사	구대웅전
경남	고성군	운흥사	대웅전
		옥천사	대웅전
	김해시	은하사	대웅전
	남해군	용문사	대웅전
	산청군	율곡사	대웅전
	양산시	신흥사	대광전
		통도사	대웅전, 대광명전, 명부전, 응진전, 용화전, 관음전, 약사전, 영사전, 극락보전, 해장보각, 삼성각, 안양암 북극전
	진주시	청곡사	대웅전
	창녕	관룡사	대웅전, 약사전
	통영	안정사	대웅전
	하동	쌍계사	대웅전, 일주문
	합천	해인사	명부전, 법보전
대구광역시		동화사	대웅전, 영사전, 수마노전
		소제사	대웅전
		용연사	극락전
		파계사	원통전

지역		전통사찰	비고
경북	경산	환성사	대웅전
	경주시	기림사	대적광전, 약사전
		백률사	대웅전
		분황사	보광전
		불국사	대웅전
		석굴암	
	구미시	대둔사	대웅전
		도리사	극락전
		수다사	대웅전, 명부전
	김천시	직지사	대웅전
		청암사	대웅전
	군위군	법주사	보광명전
	문경시	봉암사	극락전
		김룡사	대웅전
	봉화군	축서사	보광전
	상주시	남장사	극락보전, 보광전, 금륜전, 일주문
	안동시	봉정사	대웅전, 극락전 영산암 응진전, 지조암 칠성전
		봉황사	대웅전
		서악사	극락전
	영주시	부석사	무량수전, 안양루, 조사당
		성혈사	나한전
	예천군	용문사	대장전
	의성군	고운사	연수전
	영덕군	장육사	대웅전
	영천군	거동사	대웅전
		은혜사	대웅전, 백흥암 극락전, 백흥암 영산전
울진군	불영사	대웅전, 응진전	
청도군	대비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	
	용천사	대웅전	
	운문사	비로전	

지역		전통사찰	비고
경북	청송군	대전사	보광전
	칠곡군	송림사	대웅전
	포항시	오어사	대웅전
전남	강진군	무위사	극락보전
		백련사	대웅보전
	고흥군	금탑사	극락전
	구례군	천은사	극락보전
		화엄사	각황전, 원통전, 대웅전, 구층암 천불보전
	나주시	죽림사	극락보전
		다보사	대웅전, 명부전
		불회사	대웅전
	보성군	대원사	극락전
	순천시	동화사	대웅전
		선암사	각황전, 대웅전, 원통전, 팔상전, 불조전, 장경각
		송광사	국사전, 관음전, 영산전, 불조전, 약사전
		정혜사	대웅전
	여수시	흥국사	대웅전, 응진전, 무사전
	영광군	불갑사	대웅전
	해남군	대흥사	대웅보전, 천불전, 응진당, 명부전
		미황사	대웅전, 응진전
전북	고창군	문수사	대웅전
		선운사	대웅보전, 명부전, 영산전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 대장전
		선국사	대웅전
	남원시	실상사	약사전, 약수암 극락전
		개암사	대웅보전
	부안군	내소사	대웅보전
		송광사	대웅전, 범종루
	완주군	위봉사	보광명전
		화암사	극락전, 우화루
		송림사	보광전
	진안군	천황사	대웅전

지역		전통사찰	비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	대광보전, 대웅보전, 응진전, 영산전
		갑사	대적전
		신원사	종약단
	논산군	쌍계사	대웅전
	부여군	무량사	극락전
	청양군	장곡사	상대웅전
	홍성군	고산사	대웅전
	서산시	개심사	대웅보전, 명부전
		문수사	극락보전
	예산군	수덕사	대웅전
보덕사		극락전	
충북	보은군	법주사	팔상전
	괴산군	각연사	대웅전
	제천군	신록사	극락전
	청원군	안심사	대웅전
		월리사	대웅전
서울특별시		흥천사	극락보전
		안양암	대웅전

2. 반자천정 성립과 천정형식

1) 반자천정의 성립과 보편화

현존하는 전통사찰 목조건축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잇따른 전쟁과 살육은 국토를 황폐화하고 조선사회의 인적 구성원들을 꺾어버려 국가기반을 와해수준에 이르게 했다. 그 전쟁 와중에 희생된 부모형제, 무주고혼들에 대한 극락왕생을 발원하

는 천도재, 수록재 등 망자 천도의식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교는 대중의 천도 및 구복요구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불교는 민간의 천도 및 기복신앙과 결합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교리를 강론하는 법석은 천도재, 수록재 등 천도의식의 야외법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대중 참여 야외의식이 확대되면서 한국 특유의 괘불탱 조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한 천도의식이 성행하면서 의식집 간행도 활기를 띠었고, 범자 다라니, 주술적 밀교진언 등도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⁵⁾

그에 따라 대웅전, 극락전 등 각 사찰의 핵심 불전 역시 스님의 예배중심 공간에서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의례공간으로 점차 탈바꿈하였다. 법당 한 공간에서 예불과 의례가 동시에 진행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법당 안에 신중단, 영가단을 동시에 봉안한 한국 고유의 삼단양식 불전이 빠르게 퍼져 나가기도 했다. 불단 앞의 탁자는 장대한 불단 형식을 갖추었고, 후불벽은 뒤로 더 물러났다.⁶⁾

법당 천정 역시 자연스레 변화의 처지에 놓여졌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조선전기의 사찰 목조건축의 내부천정은 대부분 서까래, 도리, 보 등 가구구조가 노출된 형태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조사당,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정형식이다.

5), 6) 17,18세기 전란 후 사회변동 및 사찰건축 구조적 변화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들을 참조했다.

구미주, 「조선시대 사찰건축 천정장식문양 연구:17~18세기 반자장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김은양, 「사찰주불전의 건축구성요소 고찰:전남지방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학위논문(석사), 1998

김홍수, 「18세기 사찰불전의 건축적 특성」, 연세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1

정수희, 「조선후기 사찰건축의 공포의장 연구:17,18세기 다포계 건축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9

단청장엄 역시 대들보나 공포, 도리, 창방, 평방, 그리고 벽체 등에 식물문양이나 벽화를 그려 넣었지만, 천정은 가구의 뼈대가 그대로 노출된 형태였다.

층급형식을 갖춘 반자들의 천정은 17세기 불전건물 조영에서 보편적인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중심법당에 많은 대중의 참여 속에서 예경과 의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건축경영은 필연적이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흙 부스러기 등으로부터 안전과 청결 유지의 문제가 일차적이었을 것이고, 보다 종교적인 공간의 거룩함을 환기시키는 법당공간 창출에도 지대한 고민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지붕 모양에서도 부처님을 모신 법당의 경우 대체로 맞배양식에서 팔작지붕양식으로 보편화 되었고, 지붕의 처마를 밖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공포장치 역시 다포식으로 웅장하고 위엄을 갖춘 형태로 눈에 띄게 변화했다. 살미와 침자는 우아한 곡선의 율동감을 가지고 내외벽을 타올라 지붕 밑까지 미쳤다. 가구구조의 역동적인 짜임은 내부구조 경영에 보다 다양한 천정양식을 이끌어 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고주, 공포배치, 살미-침자, 도리, 보 등의 가구방식에 따라 천정의 형태가 경영되었다. 천정에 생명의 숲, 자비의 감로수가 베풀어지고, 문양과 조형으로 표현한 또 하나의 경전 두루마리를 펼쳐 놓을 터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2) 천정형식과 분류

〈도 1〉의 170여 주요 불전건물의 천정 형태를 분류하면 크게 연등천정, 우물천정, 평반자천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우물천정은 다시 층급 우물천정, 빗반자-우물천정, 연등-우물천정으로 세분된다.⁷⁾



〈사진 1〉 수덕사 대웅전 연등천정

(1) 연등천정(椽燈天井)

서까래와 벽체를 그대로 드러낸 방식이다. 별도의 반자를 만들지 않고, 서까래와 벽체, 지붕 밑의 상부구조를 그대로 노출한 양식이다. 엄밀하게는 천정 아닌 천정양식이라 할 수 있다. 범당건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장곡사 상대웅전, 안성 청룡사 대웅전 등이 꼽힌다(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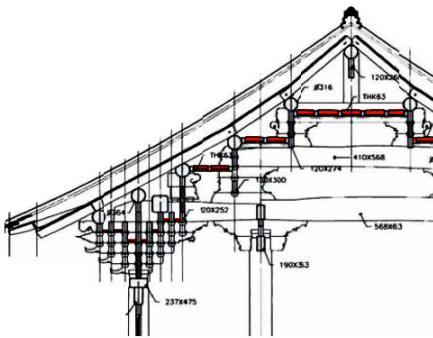
(2) 우물천정

귀틀로 바둑판 형태의 전체틀을 짜고, 한 칸의 네모를 둘레마다 줄대

7) 목조건축 천정에 대한 학계, 혹은 단청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연등천정, 우물천정, 빗반자천정, 장반자천정 등이다. 현실의 천정구조는 그 형태의 중층이거나 복합적인 양식으로 나타나므로 각 불전건물의 천정양식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위 분류는 사찰천정의 다양한 형식을 낱말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란을 둘러 반자청판을 끼워 만든 천정이다. 반자를 한 칸이 우물 정(井)자 모양을 띄기 때문에 우물천정이라 통칭하지만, 법당의 우물천정 한 칸은 불교사상의 교의가 담긴 우주론적 우물이다. 칸칸이 단청장엄을 베풀어 천정의 물리적 개념을 초월케 한다. 17~19세기에 중창한 불전건물 천정 대부분이 우물천정이다. 우물천정은 다시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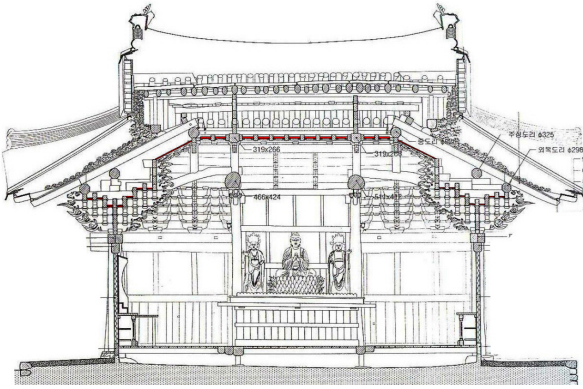
- ① 층급 우물천정: 빗물을 흘러내리게 하려면 지붕을 경사지게 조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붕과 서까래, 보, 도리를 받쳐주는 기둥의 높이가 달라진다. 중심부 내진주는 높고 가장자리 외진주는 그보다 낮다. 천정의 층급이 생기는 이유다, 내진주 영역의 천정은 높고, 외진주 영역은 그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내진주 영역과 외진주 영역 모두 정사각형 우물반자로 경영한 천정을 층급 우물천정이라 한다. 층급 우물천정은 보통 상-하 2단 층급으로 마루바닥과 평행하게



가설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도사 대웅전이나 선암사 대웅전처럼 상-중-하 3단 층급으로 공간의 심층적 깊이를 추구하기도 한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평행고임 천정을 연상케 한다<도2>.

<도 2> 통도사 대웅전 종단면도⁸⁾(도면: 문화재청)

8) 문화재청 도면을 천정양식을 알아보기 쉽도록 천정부분에 색을 넣어 1차 가공하였다. 이하의 게재 도면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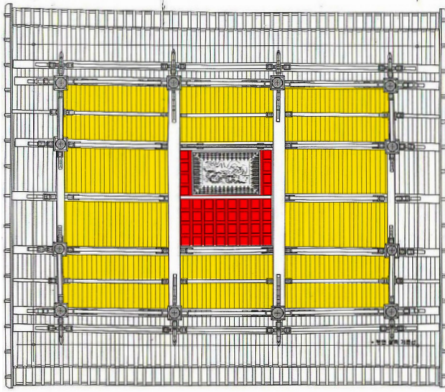


〈도 3〉 불회사 대웅전 횡단면도(도면: 문화재청)

② 빗반자-우물천정: 내진주 영역은 우물천정, 외진주 영역은 빗반자 형식을 갖춘 천정이다. 우물반자는 대개가 정사각형이지만, 빗반자는 폭을 갖춘 긴 널판이다. 그 널판으로 서까래 경사면을 따라 비스듬하게 가로, 또는 세로로 짜 맞춘 천정이 빗반자 천정이다. 빗반자-우물천정 형식은 궁륭형의 우아함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특징이 있다. 내소사 대웅전, 불회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사진 2〉 미황사 대웅전



〈도 4〉 무위사 극락보전 양시도⁹⁾(도면: 문화재청)

고흥 금암사 극락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등 서남해안 지역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도3〉. 층급 우물천정이 고전주의라면, 빗반자-우물천정은 낭만주의에 비유된다. 그런데 몇몇의 사례에서는 외진 주 영역의 빗반자 부분을 긴 널판이 아니라 정사각형 우물반자로 가설하기도 한다. 즉 빗우물반자-우물천정인 셈이다. 범어사 대웅전과 미황사 대웅전이 그러한 경우다〈사진2〉.

- ③ 연등-우물천정: 외진주 영역은 서까래와 벽체를 노출한 연등천정이고, 내진주영역은 우물반자인 천정이다. 연등천정에서 우물천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양식, 혹은 그 절충적 표현으로 보인다. 무위사 극락보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 칠장사 대웅전 등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다〈도4〉.

9) 도면의 가운데 부분이 우물반자를 갖춘 우물천정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서까래를 노출한 연등천정 부분이다.

개심사 극락보전과 문경 봉암사 극락전 천정에서는 무위사 극락보전에서 나타나는 감입형 단집 특성까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3) 평반자천정

바닥면과 평행한 단층의 우물반자 천정양식이다. 대체로 우물반자 크기는 우물천정의 반자보다 큼직한 편이다. 남장사 금륜전, 해인사 명부전 등 보통 규모가 작은 전각에서 비교적 낮게 가설되는 천정이다. 하지만 사찰건축 천정의 전개과정에서 층급 우물천정으로 진화하는 초기양식으로도 나타나는 희귀한 사례이기도 하다. 봉정사 대웅전 천정이 그러한 경우다.

3. 사찰천정 단청장엄 소재와 문양

자연의 숲에서 지혜를 빌려 예경공간을 마련하고, 내부 가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입체적 천정 공간은 곧장 종교적 장엄을 경영하는 거대한 화폭으로 탈바꿈 했다. 불전건물의 내부공간에 층층이 반듯한 화면이 생성되었고, 그 화면들은 디자인과 장엄의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자연의 현실적 질서, 형태, 색채를 원형으로 종교적 이상향을 구현하려는 종교장엄 의지가 실현되었다. 종교장엄의 일차적 질료들은 자연과 관습적 길상, 기하학적 패턴 등이었다. 꽃, 넝쿨, 구름 등 일차적 질료들은 불교사상적 상징과 사유체계에 편입되어 보다 형이상학적이며 고차적인 조형언어로 재해석되었다. 경험적 질료가 지닌 감각과 감정들은 정신적인 이상형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졌다. 그런데 그 원형적 질료들은 이미 사회적 가치수준에서 최상의

미적가치, 혹은 신령함의 상징성을 유지해왔던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사회 불교는 예술적 태도에서 포용력과 관용으로 열린 입장을 담담히 취했다. 불전건물 단청장엄에 도교, 무교, 유교적 상징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방편반야를 발휘했다. 문양에 차별과 경계를 두지 않은 습합(習合)이 이뤄졌다. 승유역불의 조선에서 역설적이게도 조선 중후기 사찰단청을 통해 문양세계와 장엄예술은 한국적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고려청자, 고려불화 등에 면면히 채색되었던 전통문양의 원형질이 사찰단청에서 재현됨으로써 전통문양이 온전히 보존된 수 백 저수지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 저수지의 문양들은 18, 19세기에 이르러 민중의 회화, 민화를 길러내는 토대로 작용했다.

불전건물 천정 단청장엄에 배운 소재와 문양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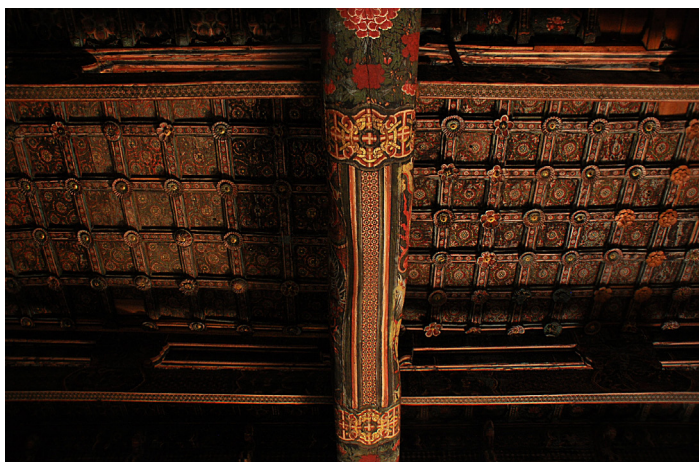
- ① 연꽃(6엽연화, 팔엽연화), 모란, 국화, 보상화, 파련화
- ② 범자종자, 육자진언, 다라니, 卍자, 한자불(漢字佛), 경전, 화장세계
- ③ 물고기, 거북, 게, 토끼
- ④ 넝쿨문, 꽃꽂이 화병
- ⑤ 용, 봉황, 선학
- ⑥ 천문 별자리, 구름
- ⑦ 주악비천, 공양비천, 범패와 악기
- ⑧ 태극, 칠보-팔보문, 쌍희자, 박쥐, 석류, 그리고 壽, 福, 水, 海 등의 문자장엄.

III. 천정 단청장엄의 기하학적 대칭과 나선형 구조

1. 기하학적 패턴과 대칭

천정장엄의 메커니즘은 대칭과 자기유사성의 반복이다. 즉 닮음을 반복하는 대칭과 프랙탈이다. 대칭과 반복은 유한의 공간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수학적 원리다. 정사각형의 반복적인 테셀레이션(tessellation)으로 무한을 경영한다. 무한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므로 무시무종이다.

화염계 경전에 나타나는 불교우주관은 한 마디로 ‘불사의한 광대 무변’의 세계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리적 숫자의 크기는 인간의 관념을 초월한 단위 일색이다. 법계우주에 부처님이 ‘항하사’의 모래알 개수만큼 많다고 가르친다. 1항하사는 갠지즈강 모래알 개수로 10의 52제곱에 해당하는 수다. 더 큰 수의 개념도 등장한다.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불가설불가설’ 등 등. 그러면 그 많은 부처님, 그 불가사의한 불국토의 경계를 천정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바로 기하학적 대칭과 패턴의 반복을 구사하는 것이다. 행과 열의 질서정연한 짜임으로 생성한 기하학적 문양패턴을 대칭과 반복의 모듈을 가동시키는 방식이다<사진3>. 강력한 에너지가 집결한 중앙부를 중심으로 사방, 팔방,十方의 대칭구도를 펼치는 것이다. 불전건물의 내부구조 및 천정은 불상이 봉안된 중심영역을 기준으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대칭을 가진 구조물에 가깝다. 오른쪽과 왼쪽, 앞과 뒤가 대칼코마니처럼 포개진다. 건축장인들의 통찰 깊은 안목에 단청장인들의 대칭적인 문양장엄의 채색은 어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대칭적 구조는 단청장엄의 예술적 노동과



〈사진 3〉 통도사 영산전 천정

재료 운용 등 작업의 여러 측면에서도 효율성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장엄 패턴의 기본적인 도형은 사각형과 원이다. 천정 단청장엄에서 정사각형과 원은 언어의 자음과 모음처럼 울림의 소리를 만들고, 장엄의 기본형식으로 문법적 기능을 발휘하는 단위요소라 할 수 있다. 그 둘은 기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칭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틀 안에 꽃과 같은 생명이나, 용과 같은 에너지, 범자와 같은 체(體)를 심는다. 그 메커니즘은 대단히 동양철학적인 원리이다. 『천부경』에 담긴 핵심 세계관도 ‘원방각(圓方角)’의 원리다. 원은 하늘이고, 방은 사각형으로 땅이고, 각은 삼각형, 또는 점으로 사람을 비롯한 생명을 상징한다. 원방각의 원리에 천지인 합일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청동거울의 제작에 구현된 원리와 일맥상통하다. 기본적으로 천정반자 하나의 단청장엄은 하늘, 땅, 생명을 담은 우주이고 불국토다. 우

물천정 칸칸이 그 불국토를 반복한다. 하나의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데 정사각형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 장귀틀과 동귀틀의 울거미로 짠 우물반자 그대로가 천정 단청장엄의 기본 모듈이 되고, 캔버스 화폭이 되는 것이다. 그 한 칸의 기본단위는 대청과 반복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불성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대한 천정 만다라로 꽃 피어나갔다. 곧 세계일화가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가 대청과 반복을 통하여 전체가 되는 순간,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화엄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천정장엄에선 한 부분도 전체와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천정 전체의 세계가 우물반자 한 칸에 충분히 귀납된다. 놀라운 화엄세계다. 이 나라 곳곳에 그 화엄세계가 비밀비재하다.

2. 중중무진의 나선형 구조

천정 단청의 평면적 전개방식이 대청과 반복이라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천정구조 전체는 프랙탈 차원의 나선형으로 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은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된다. 일주문-천왕문-불이문-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가람배치 자체가 하나의 기승전결 플롯을 가진 서사적 구조를 닮았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 극적인 공간 경영능력을 보여준다.

법당 건물 자체도 하나의 나선형 은하를 닮았다. 법당이 태풍이라면 태풍의 눈 자리에 불상을 봉안한다. 법당의 불상은 사찰 공간경영의 특이점(特異點)으로 수렴된다. 특이점(singularity)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 생명, 빛, 진리가 집적된 매우 특별한 점이다. 더 엄격히 말하면 불교장엄의 특이점은 범신 비로자나불께서 온 우주, 모든 시공에

구애됨 없이 두루 지혜의 광명을 비추시는 미간의 보주에 있다. 『화엄경』의 「노사나불품」은 연화장세계가 비로자나불께서 미간에서 비추인 광명과 선업공덕에 의해 이루신 불국토임을 밝히고 있다. 곧 미간의 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모든 부처와 중생, 물질과 생명, 세계를 만드신 것이다. 그 미간의 한 점에서 사방, 팔방으로 폭발하는 광명변조(光明遍照)의 빛을 형상화 한 심벌이 卍자다. 만자의 중심점이 특이점이고, 비로자나불이다.

법당 내부의 중층적 구조는 나선형적 상승운동 과정을 통해 중심부 대연화좌에 귀납한다. 안악 2호분, 쌍영총, 강서중묘, 덕화리 1호분 등 고구려 벽화고분의 천정, 석굴암 천정의 대연화는 공간장엄에서의 나선형적 귀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당 천정의 단청장엄에서 나타나는 공간 경영 방식도 중심을 통한 나선형적 집중과 분산의 방식이다. 먼저 법당 건물의 외진주 기둥머리에서부터 푸르른 숲, 생명의 덩굴 기운들이 율동적으로 꿈틀대며 천정 바닥면까지 뿔아 오른다. 공포구조의 살미와 첨자는 강한 생명력의 Ningkuro 능동적으로 응용된다. Ningkuro 표현한 살미구조는 대단히 역학적이며 역동적인 운동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천정면의 장엄세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줄기들이다. 그 줄기들은 담쟁이덩굴처럼 사방의 벽면을 나선형으로 타고 올라 공간의 중심으로 향하고, 천정의 우물만자에 이른다. 나선형으로 타고 오르면서 생명의 힘을 결집하고, 무한으로 확산하는 동력을 갖춘다. 소용돌이로 꼬인 에너지는 강력한 탄성력과 팽창력의 덩어리로 시스템 전체에 한층 폭발적인 힘을 부여한다.

천정의 평면에서도 대칭과 반복의 시스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천정의 구조도 중층적이지만, 천정평면의 구도도 사각형 도형의 겹겹이다. 어떤 절대적인 목적을 향한 질서가 겹겹이 구현되

어 있다. 예컨대 보성 대원사 극락전 천정처럼 선학-연꽃-모란(범자종자)에 이르는 사각형 도형의 중중의 체계다(사진4). 그 장면들은 마치 풍류-세계중-대연화에 이르는 『화엄경』에 묘사한 연화장 세계의 만다라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으로는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치에서 석함-동함-은호-금병의 순서로 사리장엄한 중중의 질서와도 겹쳐진다. 그것은 중중무진한 법계의 표현임에 분명하다. 법당은 법계의 상징적 질서와 불상의 불신을 동시에 구현한 종교건축이다. 그러니 법(法)에서 시작하여 불(佛)에서 맺는 칠언삼십구(七言三十句) 〈화엄일승법계도〉와 일맥상통하다(도5). 의상스님은 〈법계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법계도의 처음과 끝 두 글자가 중앙에 위치하는 이유로, 그 본성이 중도에 있는 까닭이라 하였



〈사진 4〉 대원사 극락보전 천정

一	微	塵	中	含	十	初	發	心	時	便	正	覺	生	死
一	量	無	是	卽	方	成	益	寶	雨	議	思	不	意	涅
卽	劫	遠	劫	念	一	別	生	佛	普	賢	大	人	如	般
多	九	量	卽	一	切	隔	滿	十	海	仁	能	境	出	常
切	世	無	一	念	塵	亂	虛	別	印	三	昧	中	繁	共
一	十	是	如	亦	中	雜	空	分	無	然	冥	事	理	和
卽	世	互	相	卽	仍	不	衆	生	隨	器	得	利	益	是
一	相	二	無	融	圓	性	法	叵	際	本	還	者	行	故
一	諸	智	所	知	非	餘	佛	息	盡	寶	莊	嚴	法	界
中	法	證	甚	性	眞	境	爲	妄	無	隨	家	歸	意	實
多	不	切	深	極	微	妙	名	想	尼	分	得	資	如	寶
切	動	一	絕	相	無	不	動	必	羅	多	以	糧	捉	殿
一	本	來	寂	無	明	守	不	不	得	無	緣	善	巧	窮
中	一	性	緣	隨	性	自	來	舊	床	道	中	際	實	坐

〈도 5〉 화엄일승법계도

다.¹⁰⁾ 나선형 겹겹이 중앙에 법과 불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 성이 부동의 중도좌이기 때문이라 설명한 것이다. 나아가 나선형의 굴곡과 겹겹의 층위를 갖는 것은 “중생의 근기와 욕망이 같지 않기 때문이며, 그 문양은 삼승에 의하여 일승을 드러내는 의미”라고 덧붙였다.¹¹⁾ 천정의 단청장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이처럼 명쾌한 언급은 드물다. 왜냐하면 천정의 단청장엄도 조형언어로 표현한 법계도(法界圖)이고 불사의한 법인(法印)인 까닭이다.

10) 의상스님과 제자들의 질의문답을 통해 법계도를 설명한 논서 『법계도기총수록』에 실려 있다.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법계도기총수록』 K.1502(45-141), 상권의 2, p.89 / 10007

11) 위의 경전, p.90 / 10007

IV. 단청으로 구현한 연화장세계

1. 천정의 꽃, 불보살

현상에서는 시시각각 아와 타의 분별력이 작용한다, 언어와 문자로 드러내는 순간 이것과 저것, 유와 무, 과거와 현재의 분별이 드러난다. 길들여진 이원론적 사고체계에서는 불교사상의 불이론적 세계는 대단히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언어나 문자가 아닌 조형의 경우 저마다 근기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으로 투영되기 마련이다.

줄기가 없거나 줄기가 자라기 전 뿌리에서 잎이 돋아나 땅 위를 방사상(放射狀) 형태로 덮는 식물을 ‘로제트식물’이라 부른다. 민들레나 질경이, 냉이, 다육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 로제트 식물의 잎들은 햇빛을 최대한 두루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공간기하학의 형태를 취한다. 서로 잎들이 겹치지 않게 사방, 팔방 형태로 어긋난다. 잎들이 2층, 3층의 층위를 가지면서도 서로의 잎을 가리지 않게 잎 자리와 크기를 질서정연하게 스스로 조절하는 경이로움을 보인다. 불문물에 가까운 경이로운 생명 디자인이다. 꽃들의 꽃잎차례도 마찬가지로 방사상 형태로 펼친다. 물론 엄격히 들여다보면 그 잎차례나 꽃차례들은 나팔꽃 꽃잎처럼 적절한 간격을 띄워 나선형으로 정교하게 배열된 것이다. 나선형의 운동에는 알 수 없는 생명의 힘과 에너지가 보존되는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 로제트의 방사상 잎차례, 그리고 꽃들의 꽃잎차례는 완벽한 대칭, 조화, 비례, 형태의 아름다움을 지녀 인간의 문양장엄의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게 매력적이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세계다. 삶의

뜨락에 핀 풀과 꽃들은 인간이 지닌 모든 미적 감각에 극락의 희열을 안겨준다. 종교적 거룩함, 또는 예경의 마음은 곧잘 저 꽃의 디자인으로 대체되어 왔다.

그런데 자연의 꽃 형태가 종교예술의 천정에 오르는 순간 더 이상 현실의 꽃이 아니다. 초월적이며 이상적인 상징의 아우라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 꽃은 예경의 정화를 거쳐 거룩함의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천정에 단청으로 피어난 모란 형태의 꽃을 여전히 모란으로 본다면 석가탑, 다보탑을 돌무지라 부르는 것과 같다. 종교적 예술은 종교적 교의를 반영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화엄경에는 우발라꽃, 파두마꽃, 구물두꽃, 분다리꽃이 등장한다. 법화경에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꽃비의 상서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러면 법당 천정의 꽃 장엄은 영산회상의 법화육서(法華六瑞)의 장엄인가? 산청 율곡사 괘불탱(1684년), 봉화 청량사 괘불탱(1725년), 영천 은해사 괘불탱(1750년)에서 묘사한 꽃 뿌러지는 장면을 보면 법당에서의 재현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 역시 부처님의 위신력과 광명에 의한 성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당천정의 꽃에는 단지 상서의 꽃비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의 깊게 천정의 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두드러진 특성들이 드러난다.



〈사진 5〉 대곡사 대웅전 우물반자



〈사진 6〉 대적사 극락전 우물반자

첫째, 꽃잎에서 입체적 보주가 나오는 장면

: 통도사 영산전, 불갑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대웅전, 전등사 대웅보전 등의 꽃문양 화심 둘레에서 입체적 보주가 나온다(사진5). 그 보주는 대들보 연화머리초에 표현한 보주와 동일한 형상이다. 보주는 진리와 자비를 함축한 여래의 메타포다.¹²⁾

둘째, 꽃의 암술 수술 자리에 봉안한 범자 ‘옴’, 또는 ‘佛’, ‘卍’자

: 이 문자와 문양이 결합된 문자꽃은 꽃이 경험세계의 꽃이 아님을 자내증으로 드러낸다.

꽃의 씨방 자리에 심은 범자(梵字)와 문자 한 자 한 자는 부처의 세계를 담고 있는 종자자(種子字)임을 확인시켜 준다. 천정의 꽃이 단순한 미적 문양이거나. 우화의 상서를 넘어 불보살께서 상주하시는 불국토임을 거듭 각인시킨다.

12) 강우방, 『수월관음의 탄생』, 글항아리, 2013, p182. 보주에 관한 깊은 성찰은 같은 책 pp327~355 참조.

셋째, 금니 채색

: 통도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 관룡사 대웅전, 전등사 대웅보전, 불영사 대웅전, 운문사 비로전, 용연사 극락전 등 많은 법당 천정에서 금니, 혹은 금박을 입힌 꽃문양을 만날 수 있다<사진6>. 연꽃, 모란이나 관념적으로 형상화한 꽃에 금빛을 입혀 광명의 빛을 부여한다. 그것은 목조나 소조 불상에 금칠을 입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빛의 영구성을 지닌 금의 물질성을 통해 종교적으로 특별한 상징성을 강조한다. 금니를 입힌다는 것은 대상이 가진 관념에 빛, 색, 향, 생명성을 영원히 부여하는 일종의 연금술에 가까울 것이다.

넷째, 운동하는 행성처럼 묘사한 꽃의 형상.

: 갑사 대적전, 경주 기림사 약사전, 환성사 대웅전 천정의 꽃잎들은 행성의 자전처럼 소용돌이 모습으로 회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사진7>. 통도사 대웅전이나 장안사 대웅전, 범어사 나한전, 불갑사 대웅전 천정 꽃은 화심에 아예 삼태극을 심고 나선형 바람개비를

단 꽃이다. 태극 도형 자체가 우주의 축소형이므로 우주만물의 본체와 생명력으로서의 기(氣)가 하나의 꽃 문양에 집약되었다. 꽃으로 법계에 충만한 생명력의 기운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7> 기림사 약사전 우물반자

위 특성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불보살의 세계를 자내

증으로 드러낸 것이다. 꽃은 현상계의 그 꽃이 아니다. 법신불이며, 여래이고, 보살로서 감각 너머 초월적 존재자를 담지한 조형의 방편 반야일 따름이다. 천정의 우물반자 칸칸이 부동의 연화좌에 부처께서 상주해 계신다. 꽃이 꽃이 아니라, 불보살이시다. 이 사실은 법당의 천정이 단순히 심미적인 공간이 아니라, 대단히 교의적인 세계임을 강하게 일깨워 준다.

2. 천정 단청, 연화장세계

불상과 불화의 조상에선 ‘32상 80종호’라는 조상규범이 있어 대체로 엄격하다. 화기, 또는 조성기의 녹화질에 증명비구 누구라고 밝혀두는 것도 그 이유다. 그런데 불단, 단집, 천정, 꽃살문 등에선 조영의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승장(僧匠), 혹은 예술가의 창의성이 곧잘 드러나곤 한다. 중국 송대의 건축설계, 시공 전문서적 『영조법식』이 있지만 대들보나 창방, 평방 등에 입힐 머리초 문양의 몇몇 도상이 연관성의 맥락을 가질 따름이다.¹³⁾ 법당 내부, 혹은 천정의 단청세계는 오히려 고구려 벽화고분의 내용과 체계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법당 내부 건축구조에 의해 형성된 천정도 고구려 벽화고분처럼 대단히 중층적이며 다면적이다. 사찰건축의 양식도 도면을 보면 천정의 구조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짜여 졌는지 다시 놀라게 된다. 천정의 형태는 이미 공간 경영능력을 지닌 도편수의 설계와 기획에 따라 결정된 바다. 남은 문제는 단청장엄의 마스터플랜이다. 전수와 계승에 의해 기술적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일정한 모듈과

13) 광동해, 『한국단청의 원류』, 학연문화사, 2011, pp.178-273

통일적인 형식이 갖춰진다.

조선전기를 비롯해서 일찍부터 전해오는 단청 조성에서의 공통규범을 현존하는 사찰건물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봉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청장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들보나 창방, 평방 등의 양 끝자리엔 연화머리초를 베푸는 경향,
- 창방, 평방의 중간엔 기하학적인 문양인 솟을죽대금 등을 시문하는 경향,
- 대들보의 중간엔 용 문양을 입히고,
- 기둥머리엔 주의초를 내려 장엄하고,
- 공포벽엔 여래도, 보살도, 또는 나한도 등을 채색하며,
- 주두와 첨자, 살미 등 공포구조엔 넝쿨 등으로 초각하는 점 등이다.

위의 법식은 그 이후의 법당 단청장엄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하나의 규범처럼 굳어졌다.

문제는 건축양식에서 새로이 발생한 중층적 천정공간, 특히 우물반자와 빗반자에 대한 단청장엄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천정 단청장엄에는 불화와 같이 화기가 있거나 소의경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단순히 아름답게 장엄한 것인지, 교의적 해석으로 경영한 것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우리는 법당천정이라는 커다란 화면이 어떤 불교세계를 구현하고 있는지, 그 전체 판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몇몇 사찰 내부의 벽면에 내부 장엄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묵서명이 있다. 법당 내부에 묵서로 단청장엄세계를 밝힌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고흥 금담사 극락전이고, 또 한 곳은 구



〈사진 8〉 금탑사 극락전 목서



〈사진 9〉 도리사 극락전 목서

미 도리사 극락전이다. 금탑사의 경우 장여 벽면 계풍 자리에 여러 범자 진언과 함께 붉은 글씨로 ‘華莊世界(화장세계)’라 적어 뒀다(사진8). 도리사 극락전의 경우는 공포벽 한 칸에 청련화와 함께 방제로 ‘蓮池會上(연지회상)’으로 기록하고 있다(사진9). 이 외에도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벽면에도 동방유리광정토를 뜻하는 ‘琉璃會(유리회)’라는 한자 목서가 있지만, 그 경우는 변형된 삼신불의 봉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리사 극락전의 경우 그 방제의 의지대로 법당 전체를 구품 극락정토로 장엄했다. 『관무량수경』에서 묘사한 구품연지처럼 하품하생에서부터 상품상생까지 극락정토로 묘사해서 문자로 천명한 의지를 건축장엄으로 실현해 놓았다. 금탑사 극락전에는 향우측 귀공포와 상벽 아래에 ‘화장세계’, ‘나무비로자나불’, ‘나모 佛法’, ‘海’ 등의 범자와 한자를 곳곳에 써서 이 법당이 연화장세계해(蓮華藏世界海)의 화엄세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천정 빗반자에는 쌍연꽃이 만발하고, 물고기, 거북, 게 등 다양한 수중생물들을 베껴어서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주법계를 표현했다. 전통사찰의 천정장엄이 연화장세계해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금탑사 극락전에서 찾게 된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예천 용문사에 소장중인 〈화

장찰해도(華藏刹海圖)>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찰 천정의 미묘하고 복잡한 단청세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미술사적 자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하학적 대칭과 반복, 중중의 사찰천정 단청장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까닭이다<사진10>.

용문사 화장찰해도는 기하학적 패턴이 두드러진 불화다. 사각형에 내접하는 큰 원 안에 원들의 중중세계다. 전체는 20중 동심원의 구도로 그렸다. 제일 바깥은 11겹의 오색 둥근 테로 표현한 풍륜(風輪)이다. 풍륜 위에는 하얀 과도가 일렁이는 푸른 물결의 향수해(香水海)를 배치했다. 향수해의 안쪽에는 다시 주황색의 거대한 연꽃을 펼쳤다. 경전에서는 심향당(心香幢)으로 표현한 세계다. 그 큰 연꽃과 바다가 있어 연화장세계의 개념적 근거를 가진다. 심향당 안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능선들로 이어진 금강륜산(金剛輪山)을 그려 놓았다. 산맥의 안은 삼천대천의 불국토, 곧 부처님 세계다. 대, 중, 소 세 크기의 원 111개가 방사상 형태로 질서정연하게 분포해있다. 큰 원 1개, 중간 원 10개, 작은 원 100개, 총 111개의 찰종(刹種), 곧 세계중(世界



<사진 10> 용문사 화장찰해도(용문사 성보박물관)

種)의 마을이다. 저마다의 등근 원은 불국토의 한 종으로 표현했다. 원 안에 ‘불광명(佛光明)’ 등 해당 세계종의 명호를 낱낱이 밝혀 두고 있다. 한가운데 중심부 원에는 비로자나불의 존명을 모셨다. 이 세계는 대연화 내부의 세계이고, 광대무변하므로 바다에 비유해서 ‘연화장세계해’, 또는 ‘화장세계’로 줄여 부른다.

아름다운 이 〈화장찰해도〉의 소의경전은 『화엄경 80권본』이다.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에서 보현보살은 연화장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하신다.

그 때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는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지난 옛적 세계해의 티끌수 겁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에 낱낱 겁마다 세계해의 티끌수 부처님을 친근하였고,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세계해의 티끌수 큰 서원을 닦아서 깨끗하게 장엄한 것이니라. (중략)

화장장엄세계해에 수미산 티끌수의 풍륜(風輪)이 있어 받치었는데, 맨 밑에 있는 풍륜은 이름이 평등하게 머무름[平等住]이니, 그 위에 있는 온갖 보배 불꽃 치성한 장엄을 받쳤고.....저 수미산 티끌수 풍륜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이름이 홀륭한 위엄 광명[殊勝威光藏]이니, 보광마니장엄향수해(普光摩訶莊嚴香水海)를 받쳤으며, 이 향수해에 큰 연꽃이 있으니, 이름이 가지가지 광명 꽃술 향기 당기[種種光明藥香幢]이다. 화장장엄세계해가 그 복판에 있는데, 사방이 고루 평탄하며 청정하고 견고하여 금강륜산(金剛輪山)이 한 바퀴 둘러있으며,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들이 각각 구별되어 있느니라.”¹⁴⁾

14)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대방광불화엄경80권본』 K.80(8-425), 「5. 화장세계품」, p.216/ 20003

풍류-향수해-대연화-금강륜산-세계중으로 심화하는 대연화 속 중중무진의 세계가 화장세계인데, 그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서원과 공덕으로 장엄한 정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눈을 돌려 내소사 대웅보전이나, 불회사 대웅전, 보성 대원사 극락전, 마곡사 대광보전 등의 어칸 천정을 살펴보자. 양시도나 평면도로 펼치면 내부천정의 구조는 ‘순각판-살미-상벽-빋(우물)반자-우물반자’ 순으로 진행된다. 그 구조면에 베푸는 단청세계는 대체로 ‘구름-식물녕쿨-나한벽화-용, 봉황, 비천, 악기, 수중생물 등-연화로 표현한 불보살 세계’로 배대할 수 있다. 중앙을 겹겹이 둘러싼 중중무진의 세계다. 특히 가장 높게 가설한 내진주 천정의 단청은 육자진언을 심은 육엽연화문 한 문양으로 통일되기도 하지만, 서너 단청문양으로 서너 겹의 테를 둘러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사진11>.

예컨대 내소사 내진주 천정의 경우, 쌍학-모란 및 연꽃떨기-8엽범자연화문-‘옴’자 팔엽문으로 전개하고, 나주 불회사 대웅전의 경우 선학-모란 꽃가지-‘옴’자 팔엽연화문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진 11>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

가장 주목되는 곳은 마곡사 대광보전 내진주 천정이다. 세 가지 단청문양으로 삼중 구조로 장엄하고 있다. 맨 바깥은 육엽연화문, 다음 겹은 모란과 연꽃떨기를 단청했고, 중앙 한가운데 세 우물반자에는 각각 한 분씩 봉안해서 삼존불을 모신 놀라운 장면이다. 육엽연화문에 존명을 올렸는데, ‘나무아미타불-나무석가문불-나무약사존불’의 형태로 봉안한, 대단히 신중하며 경건한 태도가 우러난다. 중심으로 향하는 구도가 나선형의 법계도를 떠올리게 한다. 천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통해 특별한 형태로 구현한 법계도인 셈이다. 이 모든 장엄형태들은 사찰 천정세계가 불보살의 세계, 나아가 또 다른 형식의 중중무진한 연화장세계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V. 천정 단청장엄으로 표현한 불보살 세계

1. 조형과 언어 결합한 범자종자불

천정 평면에 불보살을 회화적으로 봉안한다는 것은 대단히 난처하고 곤란한 일임에 틀림없다. 수직 벽면의 벽화와는 달리 부처님을 천정 수평면에 거꾸로 메달아 두듯이 그려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게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꽃의 조형에 거룩함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공정이 곧장 뒤따랐다. 그것은 마치 불상조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불복장 봉안과 점안의식을 통해서 불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15) 불복장 봉안과 점안의식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 참조. 대경스님 편저, 『조상경』, 운주사, 2013

과 일맥상통한다.¹⁵⁾ 더 나아가 불화조성에서 불신(佛身)의 눈, 가슴 등에 범자를 넣어 불화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원리와도 같다. 그 공정은 꽃의 화심이나 꽃잎에 금니 입힌 문자를 새기는 것이었다. 조형에 문자언어를 결합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런 일임에 분명하다. 그 문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 언어 역시 신성의 언어여야만 했다. 범천께서 만드셨다는 범자(梵字)를 새겼다. 범자종자는 일찍이 현장스님께서 제시한, 번역하지 않는 다섯 종류 산스크리트 원형인 오종불번(五種不翻)의 신성 그 자체다. 연화의 꽃잎에 불성을 함장한 것이다. 자연의 꽃이 아닌 불성의 꽃으로 나투었다. 왜냐하면 범자자의 내밀한 종자를 형상에 심어 생명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연화의 꽃잎 개수와 형태가 우물반자의 형태에 최적화 되었다. 예경으로 올릴 불보살의 존명이나 경전명, 밀교적 진언, 다라니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듈이 성립하고, 또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불화나 벽화, 조각의 형태가 아닌 대단히 관념적이며 상징적인 불보살의 한 형태가 탄생하였다. 조형미술에 문자언어의 개념성을 넣음으로써 안개 속 조형에서 구체적 개념이 뚜렷하게 돋아났다. 꽃의 화심에, 꽃잎에 범자를 심은 범자종자불이 조선 중후기의 사찰천정에 활짝 꽃피운 것이다.

2. 천정 단청장엄의 불보살

1) 중대팔엽원으로 표현한 불보살

한국 전통사찰의 천정에는 밀교적 색채와 만다라적 특성이 강하다. 광범위하게 수용한 범자와 화엄만다라적 화면의 전개에서 미묘함과

내밀함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우물천정 칸칸은 비밀스러운 총지들이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별처럼 빛난다. 천정이 거대한 원과 정사각형들의 만다라다. 만다라에는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로 나뉜다. 그 중 태장계만다라는 『대일경』을 토대로 불보살들의 자비력을 여성의 자궁으로 상징화해서 연꽃으로 표현한 불화이다. 태장계만다라의 중심을 이루는 문양이 팔엽연화문이다.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활짝 핀 여덟 꽃잎의 연꽃을 형상화한 문양인데,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이라 부른다. 여덟 꽃잎의 방위에 따라 자비의 방편으로 네 분의 부처와 네 분의 보살을 배치한다. 가운데 원에는 대일여래, 곧 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다.¹⁶⁾ 여덟 장의 꽃잎은 모두 그 중심원에 붙어서 일체를 이룬다. 비로자나불의 현현으로 충만한 우주법계는 낱알이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한 몸의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사찰의 천정장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으로 손꼽힌다. 천정의 단청장엄에서는 두 가지 패턴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모든 꽃잎에 범자종자불을 심은 형태와 가운데 원에만 부처님을 상징하는 기호를 넣은 형태다. 물론 문자의 방편을 여원 조형만으로 두루 존재하기도 한다.

(1) 팔엽 모두에 범자종자불을 심은 형태:

고성 운홍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대웅전, 통도사 대광명전 협칸천정, 천은사 극락보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16)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대일경)』 K.427(13-863), 제1권, pp.32/429-34/429



〈사진 12〉 불국사 대웅전 우물반자

데 팔엽연화문에 문자를 입혔다고 해서 중대팔엽원을 표현한 것만은 아니다. 통도사 대광명전과 용화전, 보성대원사 극락전 천정 등의 팔엽연화문의 범자종자는 아홉 자, 혹은 여덟 자로 줄인 준제진언을 심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불국사 대웅전 천정에선 팔엽연화문의 가운데 몇몇은 원에 범자 ‘옴’을 심고, 여덟 앞에는 ‘南無阿彌陀佛法僧(나무아미타불법승)’의 삼보귀의를 표현한 독특한 형태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사진12〉.

(2) 가운데 원에만 문자, 혹은 기호를 배치한 형태:

팔엽연화문이지만 가운데 원에만 기호를 새긴 패턴이다. 가운데 원에는 보통 범자 ‘옴’, 또는 한자 ‘佛’, ‘卍’자를 심는다. 내소사 대웅보전, 불회사 대웅보전, 청도 대적사 극락전, 선암사 대웅전, 기장 장안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직지사 대웅전의 경우 앞은 소용돌이로 회전하고, 가운데 원에는 저마다 다른 범자종자불을 심었는데, 우물반자 한 칸마다 범자 한 자씩 심은 거대한 종자밭이다. 범자종자불의 유례없는 메트로폴리탄을 실현해 놓았다. 상주 남장사 금륜전에서처럼 문자 대신 태극문양을 넣은 특별한 경우도 있다.

(3) 울산 신흥사 구대웅전 팔엽연화문:

외진주 영역 팔엽연화문에 다양한 제불보살과 경전, 진언을 표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범자팔엽문 외에 한자로 적은 내용이 다른 천정장엄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더러 있다. 퇴락이 심해서 완전히 판독하기 힘들지만 신중하게 획을 따라가 보면 뜻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나무인로왕보살경’, ‘나무백의관음보살’, ‘나무서방아미타불’, ‘나무금강제대보살’ 등을 비롯해서, 우물반자 칸칸이 지장보살, 일광보살, 금강장보살, 약사여래 존명을 두루 봉안하고 있다. 더욱이 ‘나무불법승삼보존’, ‘나무준제진언..’, ‘나무대광ㅇ화엄경’까지 삼보귀의와 준제진언, 화엄경의 문자장엄까지 망라하고 있어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통사찰 천정장엄이 불보살과 경전, 진언의 세계임을 이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2) 육엽연화문으로 표현한 불보살

육엽연화문은 전통사찰 천정장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단청문양이다. 그것이 연화인지, 관념의 꽃인지에 상관없이 천정 단청장엄에 가장 필수불가결한 아이템이자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육엽연화문엔 사리함에 사리일괄을 장치하듯 온갖 신성한 범자종자불과 문자, 기호를 심었다. 예경과 관상, 서원의 밭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불보살과 진언, 경전, 서원을 담은 불교 특유의 그릇으로 상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꽃잎에 심는 범자종자불은 지물이나 인게 등의 삼매야형(三昧夜形)으로 구상적 형태로 불보살을 표현하는 상징체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부처님의 신구의 삼엽의 공덕을 한 문자로 압축한 형태로 표현한다. 예컨대 경전을 압축한 문장이 게송일 것이고, 게송을 다시 줄이면 다라니나 진언, 진언의 맨 앞 자, 혹은 끝 한 자가 종자자(種子字)로 취해진다.¹⁷⁾ 비유하자면 법구를 다비하여 사리를 취하는 것과 같다. 범자 종자자가 곧 불신의 사리인 것이다. 그 종자자가 불화나 범중, 법구(法具), 단청장엄 등에 모셔져서 신성의 생명력을 지닌 진언종자, 혹은 범자종자불로 탄생한다. 범자종자는 문자의 상징과 조형의 아름다움, 생명력의 에너지를 두루 총섭한 불사의한 상징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엽연화문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교의는 ‘옴 마니 파드메 흠’의 육자진언이다. 여섯 자 진언이 연꽃 여섯 잎에 배대된다. 육자진언은 사찰천정의 단청장엄을 통해 시각적 표징으로 울림을 가진다. 시각적이지만 청각적 성음을 동시에 가진 미묘한 상징이다. 왜냐하면 그 진언은 본질적으로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이신 비로자나불의 자내증의 경지를 드러낸 미묘본심의 진언인 까닭이다. 진언이니 독송의 울림도 구축하기 마련이다. 육엽연화문의 꽃잎 채색에서 군청이나 하엽, 다자색으로 이빛, 삼빛의 바림을 푸는 원리도 그 울림의 파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진언은 한량없는 깊은 뜻의 다라니, 곧 총지(總持)를 담은 신묘한 주문(呪文)이다. 진언을 염송한다는 것은 방대하고 현묘한 경전내용을 직감적으로 체험하는 추체험의 행위다. 법당의 육엽연화 속에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의 울림을 가득 채운 형국이다. 불보살과 진언, 다양한 불교교의를 끝벌이 육각형 벌집에 꿀을 따 모으듯 육엽연화문에 결집했다.

17)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 해인행, 2008 참조.

육업연화문 단청은 그 대량생산만큼이나 각양각색의 형태로 나타난다.

(1) 육자진언을 함장한 형태:

가운데 원에 ‘옴’, ‘佛’, ‘卍’, 혹은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바(bha)’자¹⁸⁾ 넣고 여섯 옆에 육자진언을 배운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가운데 원 안의 한 종자자들은 『화엄경 80권본』의 「화장세계품」에 표현하는 “온 우주에 두루 비치는 찬란한 빛의 세계 씨앗”, 곧 세계종(世界種)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생명과 물질, 형상을 다 짓는 자비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옴’ 한 자는 불사의한 에너지와 파동, 진리로 가득한 법계우주를 표징한다. 육자진언문양은 모든 전통사찰 천정에서 관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청문양이다.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식으로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세종 12년, 1430년)과 안동 봉정사 대웅전(세종 17년, 1435년) 천정의 문양을 꼽는다. 무위사 극락보전 문양은 주존불인 아미타불, 문양 화심의 아미타불 종자자인 범자 ‘호리’ 자, 협시불인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왕진언으로 이어지는 배대관계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범어사 대웅전, 전등사 대웅전, 불갑사 대웅전 등의 문양은 육자진언문양의 대표적인 표준형으로 손꼽을 수 있다. 육자진언문양에서 특별한 눈길을 끄는 몇몇 형태도 있다.

첫째, 화심부분의 佛, 卍 등에서 보주가 나와 부처의 자비력을 시방

18) 사진 8)의 가운데 字. 세존으로 번역하는 ‘바가바트’의 맨 앞 음절을 딴 글자다.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 해인행, 2008, p. 32)



〈사진 13〉 용문사 대웅전 우물반자

삼세에 충만케 하는 형태로서 대곡사 대웅전, 전등사 대웅보전(仁),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佛) 등에 나타난다. 이 때 문양에서의 보주는 꽃잎 날날이가 상징하는 법계우주의 압축으로, 지혜와 대자대비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보주는 자비방편으로서 여래에 상응한다.

둘째, 육엽연화문 화심 부분에 단청에서 매화점으로 부르는 육각 문양이 표현된 형태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과 진안 천황사 대웅전에 매우 희소하게 나타난다(사진13). 특히 남해 용문사의 경우, 화심 부분이 원이 아니라, 육각형으로 표현하고 있어 감로수를 상징하는 물의 자비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셋째, 법당 전체를 육자진언이 웅혼하게 울려 퍼지는 거대한 공명 공간으로 장엄한 사례다.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이 그런 경우다. 각 행의 중앙 칸에 있는 수백 우물반자 모두 육자진언문양의 바다로 장엄했다. 문양의 화심은 ‘卍’자와 불의 약자 ‘仏’를 심었다. 높고도 웅장한 천정이 온통 육자진언으로 가득해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2) 제불보살의 존명을 함장한 형태:

여섯 연꽃잎에 육자진언 대신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등의 불보살 존명을 심은 문양이다. 통도사 대웅전, 마곡사 대광보전, 수원 용주사 대웅보전, 진안 천황사 대웅전 등에 나타나는 사례다. 천황사 대웅전의 경우, 여섯 꽃잎에 ‘항사제불지계(恒沙諸佛之界)’, ‘성인○입법당(聖人○入法堂)’ 등의 문장을 써넣었다. 항하사의 모래알 개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상주해 계신다는 뜻이다. 특히 통도사 대웅전의 경우,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종자자 ‘바(bha)’, 또는 ‘卍’자를 중심 원에 넣고 여섯 꽃잎마다 제불보살의 범자종자불을 심은 후 천정 중간층 사방전면에 배치했다(사진14). 거대한 천정공간을 불보살의 범자종자불로 장엄한 종자만다라(=법만다라)의 구현한 것이다. 두 곳 모두 형상불이 아닌 문자불로 항하사의 모래알 개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의 불국토를 상징적으로 경영한

것이다. 새삼 강조하지만 육엽범자연화문 역시 단순한 꽃이 아니라, 고도로 압축한 날날의 불국토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진 14〉 통도사 대웅전 우물반자

(3) 특수한 장엄사례, 양산 통도사 영산전:

영산전 동서 양 협칸의 네 모서리 우물반자는 총 84칸이다. 이곳에 유례없는 육엽연화문을 놀라움으로 만날 수 있다. 가운데 원과 여섯 꽃잎에 불교의 거의 모든 교의를 총섭하며 천정 단청장엄의 팔만대장경을 펼쳐 놓았다. 이곳의 장엄세계는 우리나라 사찰천정 단청장엄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¹⁹⁾ 가운데 원과 여섯 꽃잎에 한자 한 글자씩 배치해서 리듬감 있는 칠언율시 형식으로 표현했다. 먼저는 제불보살의 존명을 모셨다. 석가모니불, 아미타여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제불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총섭해서 불국토를 펼쳤다. 청정도량에로의 봉청(奉請)의 뜻도 담아 ‘불신보변시방중’, ‘삼세여래일체동’을 천명한다. 그런 상주법계를 정법안장한 후, 사구계나 칠언절구의 운율을 갖춘 여러 계송을 찬탄한다. 법화경 사구계를 비롯하여, 아미타불 <관불계>, <장엄예불>, <공양계>, <금강경오가해>, 사시예불의 <현좌진언>, 예수재 <옹호계>까지 망라한 장엄세계를 펼친다. 예를 들어 ‘백의관음무설설’, ‘남순동자불문문’, ‘사십팔원도중생’, ‘보살연각성문중’, ‘나무영산회중법’, ‘묘법연화경서품’, ‘시방삼세봉청불’, ‘자타일시성불도’, ‘세존당입설산중’, ‘아미타불진금색’, 등등이다. 자비와 경전의 바다, 교해(敎海)다.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장엄의 바다다.

1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재학, 『현대불교신문』, ‘화엄의 꽃 절집천정’, 2014. 10. 30일자 참조

3) 오방불(五方佛)로 표현한 단청

오방불의 표현은 밀교 금강계만다라의 핵심을 이루는 도안이고 사상이다. 중앙과 네 방위에 중중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모셔, 오대오불(五大五佛) 및 오부오불(五部五佛)의 엄격하고도 기하학적인 도상으로 표현한다. 금강계만다라의 오방불과 오불증자는 ‘동-아촉불-흙, 남-보생불-트라하, 서-아미타불-호리, 북-불공성취불-아하, 중앙-비로자나불-밤’으로 배대한다.²⁰⁾

원각사박물관 소장 〈범자원상 금강계만다라〉(고려, 大德5年, 1301년) 목판본 도상은 금강계만다라를 중앙 칸 성신회(成身會)의 도상으로 압축한 형태로 보인다〈사진15〉. 그 도상은 시방삼세에 상주하는 제불존상의 자비 공덕을 압축한 도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강계만다라를 압축한 그 같은 범자원상이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사찰천정 단청장엄에서 매우 창의적인 문양으로 전개 되었다. 오방불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15〉 원각사박물관 범자원상

20) 이에 대한 자세한 논문은 한정미, 「불상점안시 점필에 나타난 사상과 의의 고찰」, 『정토학연구』 제25집, 2016년 6월 참조

불이(不二)의 한 몸으로 일체화 했다. 불영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과 원통전, 청도 용천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대웅전,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전등사 대웅전, 장육사 대웅전 등이 그 사례다. 특히 화엄사 원통전과 불영사 대웅전에서는 천문도 같은 분



〈사진 16〉 통도사 용화전 우물반자

위기의 힘찬 백묘 선으로 묘사해 주목을 끈다. 하지만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형태의 오방불 상징 디자인은 통도사 전각에서 집중적으로 표출했다. 대웅전(1645년)과 용화전, 대광명전의 오방불 천정단청이 그러하다(사진16). 대웅전의 최상층 특수공간에 장엄한 오방불은 4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금빛으로 찬란하다. 금니로 우아하고 율동적인 모습으로 그려냈다. 용화전의 오방불 단청은 연화, 모란, 국화의 형상을 빌려 지극한 아름다움을 갖춘 명작으로 탄생시켰다. 그 수승한 미증유의 꽃들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의 경계를 초월한 꽃이다. 시공의 양 변을 여의고 시방삼세에 두루 상주하시는 부처님의 상징들이다.

4) ‘옴아흙’ 등으로 표현한 삼종불(三種佛)

『제교결정명의론』에 ‘옴아흙’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사진 17〉 통도사 대웅전 범자삼종불

“흠자는 곧 범신이고, 아자는 곧 보신이며, 움자는 곧 화신이니, 이와 같이 세 글자가 이 삼신을 포섭하고 있다.”²¹⁾

‘움아흠’을 ‘삼밀종자’라 한다. 부처님의 신(身),구(口),의(意) 삼밀을 함장한 까닭이다. 움은 신밀, 아는 구밀, 흠은 의밀이다. 그러므로 ‘움아흠’은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동안 신구의 삼밀로 쌓아 오신 선업을 표징한다. 그 셋은 삼위일체불이다. 삼종불은 대개 건축가구의 평방 계풍자리에 원 세 자리를 마련해서 봉안한다. 통도사 대광명전 평방, 은해사 대웅전 평방, 예천 용문사 대장전 평방, 경산 환성사 대웅전 평방 등에 삼종불 형식이 나타난다.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삼종불 형식은 통도사 대웅전 장여에 표현한 삼존불이다(사진17). 다자색 삼빛의 바림을 푼 세 원 안에 세 범자종자불을 심어 두

21)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제교결정명의론』 K.1420(40-149), p.9/12

었다. 가운데 범자는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바(bha)'지만, 나머지 두 범자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삼존불을 모신 여러 곳 중에서도 오직 한 곳에만 범자중자불 아래 한자로 존명을 밝혀 두었다. 향좌측부터 차례로 '허공장보살-석가모니불-보현보살'이라는 방제를 써 둔 것이다. 천정뿐만 아니라, 가구의 벽면에도 불보살의 세계를 경영한 것이었다. 어둡고도 높은 곳곳에도 불보살의 세계임을 망각해서 는 안 되는 이유다.

VI. 결론; 범자중자불의 연화장세계

왜 생명의 넝쿨들은 살아 꿈틀거리며 나선형으로 뻗어 나가는 것일까?

불교사상의 핵심인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진공묘유(眞空妙有)로 표현한다. 진공-참다운 공은, 묘유-살아 꿈틀거리는 미묘한 무엇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스스로 지은 선업공덕이 있고, 연기법이 있는 까닭이다. 생명의 넝쿨은 곧 스스로의 업에 의한 시공을 초월하는 연속성이라 할 것이다. 사찰천정은 순환하고 꿈틀대는 그 생명력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단청의 색채로 엄숙히 장엄한 생명의 세계다. 넝쿨과 용, 봉황, 선학 등 저마다의 몸짓이 살아있고, 우물천정 칸칸에는 형형색색의 꽃들로 만발하다. 천정 단청장엄의 궁극은 결국 저 꽃으로 향한다. 내진주 중앙 칸 천정엔 불문울처럼 꽃의 세계를 경영했다. 왜 꽃인가? 꿈틀대는 진공묘유의 생명력이 열반적정에 이른 곳인 까닭이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자리인 까닭이다. 미묘한 꽃이기에 '묘범연화'이고, 엄숙한 꽃이기에 '화엄'이다. 그래

서 그 꽃은 자연의 꽃이 아니다. 자비와 지혜의 선업으로 이룬 진리의 꽃, 열반의 꽃이다.

사찰천정 단청장엄의 핵심 질료는 꽃과 범자다. 그것은 곧 사찰천정의 단청장엄이 조형과 문자언어가 결속한 독특한 방식의 종교장엄임을 시사한다. 불상이나 불화와는 또 다른 형식의 상징불을 천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봉안했다. 그 형식은 우물천정이라는 특수한 화면에 단청장엄 보현행(普賢行)이 최적화를 이룬 절묘한 양식이었다. 천정 전면에 가설된 정사각형 우물반자들은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의 불국토를 상징화 하는 데 그만큼 훌륭한 장치는 또 없었다. 범자종자 불 범자 한 자는 발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종자(種子)다. 천정은 행과 열로 구획된 무시무종의 대칭세계다. 또한 그 세계는 중층으로 깊이를 갖춘 중중무진이었다. 한 칸 한 칸이 한 분의 부처님 법음이 미치는 삼천대천세계로 구획하였다. 종교예술가들이 우물천정 칸칸의 팔엽 꽃잎에, 혹은 육엽의 꽃잎 낱알에 범자 종자자(種子字)를 심었다. 그것은 불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불복장 및 점안의식과 다르지 않다. 완성된 불화에 범자로 신성을 부여하는 범자 법인(法印)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꽃잎에 범자종자를 심어 단청의 꽃이 부처님의 상징으로 화현했다. 천정에 삼존불, 오방불, 중대팔엽원의 팔불, 53불, 천불로 현현했다. 불성의 씨앗을 심은 대로 부처님의 꽃이 피어났다. 엄숙하게 장엄한 화엄의 꽃이다.

때론 꽃잎에 부처님의 진리 설법의 성음을 저장했다. ‘옴 마니 파드메 흄’의 일승원음이었다. 대칭과 반복을 통해 거대한 종자만다라(種子曼荼羅)를 구현했다. 천정에 색과 소리, 향, 그리고 범자종자의 금니에서 발하는 광명이 있었다, 천정은 곧장 건축의 물질적 구성의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이며 교의적인 세계로 심화되었다. 천정은 비

로소 진리 법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고요하며 신령한 기운이 흐르는
열반적정의 세계로 승화했다. 그 세계는 궁극적으로 생명력이 충만
하고 진리와 자비로 가득한 화엄의 연화장세계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방, 『수월관음의 탄생』, 글항아리, 2013
『한국미술의 탄생』, 솔, 2007
- 광동해,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2002
『한국 단청의 원류』, 학연문화사, 2011
-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2015
- 권탄준, 『화엄경의 세계』, 씨아이알, 2013
-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효림, 2004
- 김희정, 『한국 단청의 이해』, 이산문화사, 2012
- 디트리히 제켈, 이주형 옮김, 『불교미술』, 예경, 2007
- 마이클 슈나이더, 이충호 옮김,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경문사, 2007
- 사카이 다케시, 이경덕 옮김,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 다른세상, 2009
- 이언 슈튜어트, 『아름다움은 왜 진리인가(대칭의 역사)』, 승산, 2010
- 이태승, 최성규 공저, 『실담범자 입문』, 정우서적, 2008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8
- 태경스님 역저, 『조상경』, 운주사, 2013
-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 해인행, 2008

- 구미주, 「조선시대 사찰건축 천정장식문양 연구:17~18세기 반자장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9
- 김은양, 「사찰주불전의 건축구성요소 고찰:전남지방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학위논문(석사), 1998
- 김홍수, 「18세기 사찰불전의 건축적 특성 연세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1
- 정수희, 「조선후기 사찰건축의 공포의장 연구:17,18세기 다포계 건축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9

■한정미, 「불상점안시 점필에 나타난 사상과 의의 고찰」, 『정토학연구』 제25집,
2016년 6월

■경전 검색 및 인용

: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The World of Buddha and Bodhisattva Expressed in Dancheong

- Centered on Dancheong of the Ceiling in the Traditional Temples -

Noh, Jae Hak Buddhist Art Photographer

Dancheong meaning the work of decorating the Buddhist buildings by painting with brilliant colors is the solemn art that borrowed the wisdom from nature's forest. Dancheong is the artistic and cultural artifact that is reconstructed in harmonious and sophisticated colors and forms in complex and diverse natural patterns. Dancheong is most nobly concentrated in the ceiling of the Buddhist buildings.

The dynamic frame of the house and furniture structure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ages led to more changes in the ceiling form. In the Koryo Dynasty and the early-Joseon Dynasty, the inner skeleton of the roof was the ceiling itself. However, in the mid-Joseon Dynasty after the Imjin war, appeared a ceiling where the frames whose form was like 井(the Chinese character meaning the well) were set up evenly or slantly under the roof and each vacant cell in the frame was covered with a board.

This new ceiling provided a big space for Dancheong and demanded careful attention to the expression of religious doctrine using various subjects. Each board in the cell of the frame arranged in the rows and columns could be used as a very useful device for symbolically expressing the vast world view of Buddhism and the cosmos. Also, each pattern on the board could express the wisdom of the world filled with Buddha's truth and mercy. Furthermore, by repeating several patterns and utilizing the geometric symmetry of the ceiling structure, the whole ceiling looked like the magnificent Buddhist paradise of mandala.

The main subjects of Dancheong were lotus flowers and Sanskrit characters. Each character of Sanskrit represented the truth itself that couldn't be translated and the whole knowledge of Buddha. That's why this Sanskrit character in the center of each pattern was recognized as the seed of Buddha. After painting the eight petaled lotus or the six petaled lotus on each board, they planted this Sanskrit character on the center of the lotus as the seed of Buddha. The pattern was like an orderly holy ritual expressing the ultimate purpose of Buddhism. This is because the new type of Buddha, Sanskrit character Buddha, was enshrined in a special space, the ceiling. It was a new kind of Buddha born as a figu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isting Buddha expressed as the form of the statue or the painting. The symbolic aura was as profound as the subtle implication of Sanskrit character.

In this Sanskrit character as the seed of Buddha, they planted the Buddha's color, sound, fragrance, and light, and made three respectable Buddhas, five direction Buddhas, om-ma-ni-ban-me-hum, eight

direction Buddhas, and thousand Buddhas be born on the ceiling as if all the flowers were blooming at the same time. By using the technique of symmetry and repetition, the world of huge seed mandala was revealed. In conclusion, Dancheong in the ceiling ultimately embodied the Buddhist land of perfect bliss called the Hwa-eom world filled with the truth and mercy of Buddha.

Keywords : Dancheong, Sanskrit character as a seed of Buddha, Eight petaled lotus in the center of mandala, The Buddhist land of perfect bliss.